

반반 문학!  
[EBS+수능기출]

◎ 수능완성 편

06수능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손 돌아 파릇하고,

흄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긴 :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 :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 : 달력.

(나)

㉠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 동 동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었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엮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끌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 불이 고운 나의 사람.

㉥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한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16.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와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

0606모평 최승호, '북어'

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다.

- ②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다.
- ③ '덩그락 불이 / 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하얏다'를 '하이얏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17. (나)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이다.
- ③ ㉠는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해 주는 존재이고, ㉡는 화자와 반목하는 존재이다.
- ④ ㉠는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존재이고, ㉡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이다.
- ⑤ ㉠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고, ㉡는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18. (나)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1점]

<보 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은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다)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 ④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한다.
-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우우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고택이에 께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깨물은 ㉢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개의 ㉣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 눈,  
북어들의 뺨뺨한 ㉠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北魚)」 -

(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흑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1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16. 시인이 시를 창작하면서 시상을 떠올린 과정을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청무우밭'은 '바다'의 색채와 형태에서 연상된 것거야.
- ㄴ. '물결'과 맞서고 있는 '나비'의 모습에서 '공주' 속성을 떠올렸을 거야.
- ㄷ. '꽃이 피지 않아서'는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의 모습에서 연상되었을 거야.
- ㄹ.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간각적 심상일 거야.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7. (나)의 주제 의식과 관련지어 볼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 ③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 ④ '공연히', '아직도', '흑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 작품의 내용과 정서를 고려할 때, (가)의 '나비'와 (다)의 화자가 나누었음직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의 화자: 우리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
- ② (가)의 '나비':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곳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 ③ (다)의 화자: 당신은 이미 그 곳에 가 보지 않았던가요? 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 ④ (가)의 '나비': 저는 너무 순진하게 덤벼들었다가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 ⑤ (다)의 화자: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들은 슬픈가 봅니다.

이수능 규원가, '허난설현'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 날러는 엇디 살라 후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  
 잡스와 두어리마누논 / ( ㉠ )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  
 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 위 증즐가 대평성덕  
 (太平盛代)

- 「가시리」-

(나)

뫼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시는 창(窓)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 흥량의 시조-

(다)

바람도 쉬어 넘는 ㉡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山)진이 수(水)진이 해동청(海東靑) 보라매 쉬어 넘  
 는 고봉(高峰) 장성령(長城嶺) 고개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  
 가리라  
 - 작자 미상의 시조-

(라)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度)  
 실기(失期)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手)\* 가렸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 난간(欄干)에 비껴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쉰다.  
 세상(世上)에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 말동 하여라.  
 - 허난설현, 「규원가」-

\* 약수(弱手) :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전설상의 강 이름

42. (가)~(라)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이별에 따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덕을 송축(頌祝)하고 있다.
- ③ 민중의 적극적인 생활 의지를 담고 있다.
- ④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의탁해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43. (가)와 (라)가 동일한 화자의 노래라고 가정할 경우, (가)에서 (라)로 상황이 변한 데 따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애초에는 망설였으나, 역시 보내 주길 잘한 것 같다.
- ② 임을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그리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졌다.
- ③ 처음에는 내가 임을 버렸는데, 이제는 임이 나를 버리는구나.
- ④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헤어질 때 왜 그렇게 애달파했을까?
- ⑤ 붙잡고 싶었던 임을 보내 주었는데, 어찌하여 소식조차 없을까?

44. ( ㉠ )에 들어갈 알맞은 구절은? [1.8 점]

-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 ② 선후면 아니 올세라
- ③ 어마님긔티 괴시리 업세라
- ④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 ⑤ 유덕후신 님 여히와와지이다

45. (나)의 시어 가운데 <보기>의 밑줄 친 구절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보 기>

안녕, 친구야.  
 네가 전학 간 지도 일 년이 지났구나. 그 곳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 있단다. 보고 싶구나, 친구야. 내 마음을 편지와 함께 이 테이프에 담아 보낸다. 테이프에 녹음한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지.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는 너를 만나러 갈 계획이다. 너를 다시 만날 날이 무척 기다려지는구나.

- ① 뫼버들                      ② 님                      ③ 창(窓)
- ④ 밖                              ⑤ 밤비

46. ㉠~㉥ 중, ㉡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어는?

- ① ㉠                              ② ㉡                              ③ ㉢
- ④ ㉣                              ⑤ ㉥

06수능 정철, '속미인곡'

(가)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霜天月照夜河明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客子思歸別有情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厭坐長宵愁欲死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忽聞隣女擣衣聲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聲來斷續因風至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夜久星低無暫止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自從別國不相聞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今在他鄉聽相似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 나도 임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 내 몸의 지은 죄 외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 설워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  
 글란 생각 마오 맏힌 일이 있어이다  
 임을 뵈서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누라서 되셨는고

[A]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누 집 이  
 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듯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  
 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板

牆)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범 천 평 이상의 ㉡ 명실상  
 부의 공지가 아닌가.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  
 으로 덮인 실로 ㉢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  
 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  
 다.

인마(人馬)의 발자취가 끊인 지 - 아니 그건 또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 오랜 이 공지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희롱한다. 정말 공지 - 참  
 말이지 이 세상에는 인제는 공지라고는 없다. 아스팔트를  
 깐 뻥질한 길도 공지가 아니다. 질편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유답이요, 아무개 소유의 산갓\*\*이요, 아무  
 개 소유의 광산인 것이다. 생각하면 들에 나는 풀 한 포기  
 가 공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치대로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 일 보의 반 보를 어찌 옮겨 놓으리  
 오. 오늘 우리가 제법 교외로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  
 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 묵허(默許)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  
 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뺏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초  
 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봄이 왔다.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盆)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이 튼다. 그 닷굽 한 되도 안  
 [B] 되는 흙 위예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트  
 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  
 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를 뺏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

-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

\* 목산 : 눈으로 어림셈함.

\*\* 산갓 : 산갓. 산림의 의미.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나  
 타나 있다.
- ②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자세를 보이  
 고 있다.
- ③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  
 나 있다.
- ④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  
 다.
- ⑤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25. (가)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과 ‘은하수’는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
- ② ‘다듬이 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③ ‘바람’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④ ‘별이 낮도록’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 준다.
- ⑤ ‘서로 비슷하네’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첩됨을 드러낸다.

26. (나)를 상소문이라고 가정할 때, (나)의 ㉠~㉣ 중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상소문은 여러 경우에 쓰는데, 그 중에는 개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전말을 밝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 ② [A], [B]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 [B]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④ [A]에는 공간적인 이동이, [B]에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⑤ [A]는 반어적인 표현을,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28. <보기>를 통해 (다)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인이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어 간다.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율화의 불길이다.

- ① 도시적 삶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려 해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전통적 가치가 배척되는 근대 사회를 보고 비애감을 느

끼고 있다.

- ③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
- ④ 도시 문명에서 도피하여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다.
- 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다.

29. (다)의 ㉠~㉣ 중, 같은 장소를 가리키지 않은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다)의 ‘풍기는’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키로 까불러서 검불을 풍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 ② 이국의 정취가 풍기는 아름다운 거리를 한없이 걸어갔다.
- ③ 진한 향기를 풍기는 붉은 해당화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
- ④ 총소리가 풀숲에 숨어 있던 새들을 풍겼다.
- ⑤ 시골 길로 버스가 지나가자 먼지가 풍겼다.

0909모평 오상원, '모반'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을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어머니—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 신문 구절과

[A]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그러나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이미 우리는 ㉡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 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클락슨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정각에서 삼십 분 전. 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 클락슨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B] "연기는 안 돼. 생각해 봐.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알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말을 태다. 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축 쳐져서 내려앉은 ㉣ 방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 가서 훑어봤다. 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며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의사가 왔어요?"

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켜다. 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거리는데는 같았다. 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꼭 움켜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미 시선과 손의 감각만으로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그는 가슴이 뭉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머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언제 돌아오냐?"

"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돌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러 주세요."

"오냐."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데는 것이었다.

[C]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달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그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여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서였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 오상원, 「모반」 -

47. 위 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48.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보기>의 ㉠~㉣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 개별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가는 ㉢ 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50.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04수능 이옥, '심생전'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씌워 등에 업고, 머리를 맡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싹뿔 보아도 절색이었다.

[A]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렵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걸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배회하다가 이웃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회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유.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이라유.”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처녀가 다가오자 집에다 거짓말을 꾸며 댔다.

“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꺾꼬리 새기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훅!”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B]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홀연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년은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 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주세요.”

심생은 곧이듣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빙 돌아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너라. 밤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난다.”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다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켰다. ㉠ 정적에 쌓여 잠이 깊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옥, 심생전(沈生傳) -

\* 운종가, 소광통교, 소공주동 : 서울의 지명.  
\* 계사 : 회계원.

24. [A]의 주된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준다.
  - ②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 ③ 여자 주인공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④ 전개될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 ⑤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바뀌어 변화의 묘미를 준다.

25. [B]에서 ‘처녀’의 언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음부터 차분하게 행동한 것은 ‘심생’에 대한 호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일 거야.
- ② ‘심생’이 붙잡았을 때 놀라지 않은 것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 ③ 겁이 난다고 한 것은 여종에게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기 위해서일 거야.
- ⑤ 문을 소리 내어 잠근 것은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일 거야.

26. ㉠의 상황에서 읊었을 만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음속의 끝없는 사연을 세세하게 옮겨다가  
달빛 비친 사창과 비단 휘장에 님 계신 곳 전하고자  
그제야 알뜰히 그리워하는 줄 짐작이나 하실까
- ② 꿈이 날 위하여 먼 데 님 데려왔거늘  
간절하고 반갑게 여겨 꿈 깨어 일어나 보니  
그 님이 성나서 갔는지 간 곳이 없으려
- ③ 각시네 꽃을 보소 피는 듯 시드나니  
옥 같은 얼굴인들 청춘을 매었을까  
늙은 후 찾는 이 없으면 뉘우칠까 하노라
- ④ 꿈에 다니는 길이 발자취 날작시면  
님의 집 창밖이 돌길이라도 닳으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⑤ 아아 내 일이어 그릴 줄을 몰랐더니  
있으라 하였더면 갔으랴만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27.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묘사가 돋보인다.
- ②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켜 박진감을 준다.
- ③ 당시에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④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⑤ 남자 주인공의 순수한 집념과 성공이 지닌 교훈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05수능 이육사, '최고운전'

앞 부분의 줄거리 :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진 최치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에게 글을 배운다. 최치원이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신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함에 달걀을 넣고 봉한 다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 한다.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리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장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왕에게 조서를 보내 중국으로 부른다.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낙양 성문에 들어서니, 어떤 학사가 치원에게 묻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가?”

하니, 치원이 말했다.

“산과 내는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린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매달린 곳을 말하겠소.”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최 문장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이고자 삼문(三門) 안에 몇 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판 후, 악공들을 그 안에 매복시키고 경계하여 말했다.

“만약 최 문장이 들어오면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사문(四門) 안에는 ㉠ 장막을 설치하여 코끼리와 사 람을 장막 안에 매복시킨 다음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궤문에 들어서니 쓰고 있던 모자가 문 꼭대기에 달았다.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 “비록 우리 소국의 궤문이라도 내 모자가 달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궤문에 내 모자가 달는단 말인가?”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궤문을 부수게 한 연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치원이 궤문을 지나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치원이 즉시 청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그쳤다. 삼문에 들어서니 또 음악 소리가 들려 흰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곧 그쳤다. 사문에 들어서니 흰 코끼리가 장막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치원이 황색 부적을 던지자 그 부적이 변해 누런 별이 되어 코끼리 입을 둘러싸니,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황제는 치원이 여러 문을 아무런 탈이 없이 태연하게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

“이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치원이 오문(五門)에 들어서니 학사들이 좌우로 쭉 늘어 서서 서로 경쟁하듯 질문을 던졌다. 치원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직 시를 지어 주었는데,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

는지라 학사들이 그 시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사들이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했다.

치원이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이내 인사말을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소?”

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황제가 물었다.

“어떻게 알고 시를 지었소?”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무릇 현자는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통달해 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 짓는 것쯤 못하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음 속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또 물었다.

“경이 삼문 안으로 들어올 때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소?”

치원이 대답하길,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삼문 안에 매복해 있던 악공들을 불러들여 꾸짖으니, 악공들이 모두 아뢰었다.

“우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 청의와 백의를 입은 자들 수천 명이 와서 우리를 묶으며, ‘대빈(大賓)께서 오시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에도 감히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니 구덩이 안에는 큰 구렁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가 감탄하여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⑩ 장막을 쳐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종 드는 관리들을 배치하는 등 모두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 위 작품의 서사 구조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20번과 21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공간	사건	장애물	해결 수단
신라 어전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중국으로 가다.		
낙양 성문	어떤 학사와 수수께끼 대결을 하다.	수수께끼 ↔ 수수께끼	
궐문	궐문을 부수게 하다.	궐문 ↔ ㄱ	
삼문(三門)	구덩이 안 악공들을 제압하다.	음악 ↔ 소리	ㄴ
사문(四門)	코끼리의 위협을 막아 내다.	흰 코끼리 ↔ ㄷ	
오문(五門)	학사들의 질문을 물리치다.	질문 ↔ ㄹ	
황제 어전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다.		

20. 해결 수단의 ㄱ~ㄹ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ㄱ	ㄴ	ㄷ	ㄹ
① 50자 모자	구렁이	누런 벌	시	
② 50자 모자	누런 벌	시	용상	
③ 구렁이	악공	50자 모자	누런 벌	
④ 구렁이	50자 모자	용상	시	
⑤ 누런 벌	악공	용상	구렁이	

21.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버려진 영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 ② 대국에 대한 소국의 자존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 ③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다.
- ④ 학식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 ⑤ 개인이 부당한 위협에 맞서 가는 과정이다.

22. ㉠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환히 알고	神策究天文
오묘한 헤아림은 지리를 꿰뚫었네.	妙算窮地理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戰勝功既高
만족할 줄을 알고 부디 그만두시오.	知足願云止

— 을지문덕,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

- ① 상대를 높이는 듯하면서 우회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② 사실을 과장하여 상대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있다.
- ③ 재치를 발휘해 상대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웅적인 기개로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 ⑤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

23. 황제가 최치원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와 ㉢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는 열등감을, ㉢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 ② ㉡는 보호의 효과가, ㉢는 은폐의 효과가 있다.
- ③ ㉡는 시험의 의미를, ㉢는 예우의 의미를 띤다.
- ④ ㉡는 상대에 대한 포용을, ㉢는 회유를 뜻한다.
- ⑤ ㉡는 상대에 대한 위협을, ㉢는 용서를 뜻한다.

11수능 작자미상, '운영전'

[앞부분의 줄거리] 선비 유영이 꿈에서, 죽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대군은 궁녀 열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운영은 김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김진사의 노비인 특의 꾀에 따라 둘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께 지성으로 발원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 하리라.”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다.”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넣는 등 특을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심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어닥쳤습니다. ㉠ 박살날 것 같아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심여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비녀 한 쌍과 거울 하나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장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애써 침묵하였습니다.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웬놈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 나왔소. 도적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 났소. 나는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가 찾아가기를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영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소.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내었소.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나를 죽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舘)하겠소?”

맹인이 말했습니다.

“길하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특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 섰을 때 마음 씀씀이가 어떠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서 궁을 수색하게 하니,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대군은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엄히 갖춘 다음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대군은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에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도록 해라.”  
 은성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혀서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꺾고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제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비취가 초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로지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상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씻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초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인의 진술.

4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사’는 재물을 찾기 위해 ‘특’의 집을 수색했다.
  - ② ‘특’은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고 ‘맹인’에게 말했다.
  - ③ ‘맹인의 이웃’이 들은 말이 전파되어 궁중에 들어갔다.
  - ④ ‘대군’은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게 했다.
  - ⑤ ‘은성’은 억울해 하면서도 다른 궁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48. ‘궁궐의 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은 위선과 진실을 구별하는 경계이다.
  - ② 담 안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③ 담 안의 궁녀들은 담 밖의 세상에 관심이 없다.
  - ④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 ⑤ 담 밖은 담 안과 달리 신분적 위계가 없는 공간이다.

49.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서사는 운영과 김 진사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을 억압하는 ‘대군’은 그들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반면, 음모를 꾸민 ‘특’은 간교한 인물로만 부각된다. 이런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금지된 사랑을 하는 주인공의 위기도 어느 고전 소설과 달리 현실적 긴장감을 띠게 된다. 이로써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드러낸다.

- ①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다.
- ②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군.
- ③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진술에서 그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느껴지는군.
- ④ 궁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비취’의 말에서 나타나군.
- ⑤ 궁녀들에게 내려진 금기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 밖에 없었다는 ‘은성’의 말에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50. ‘특’이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이었으나 겨우 도망했습니다.”

- ① 내우외환(內憂外患)
- ② 명재경각(命在頃刻)
- ③ 사고무친(四顧無親)
-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08수능 천승세, '만선'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그래 얼마나 올렸어?  
**도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줘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석 장은 올랐제?  
**구포덕**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음개는 일부러 쌍다구 딱 찡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러라우? 맘이 기빠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영문을 몰라) 은 소리여? (㉢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은 소리여? 영?  
**연철** (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비명처럼) 뭣이라고?  
**곰치**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뭣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며? 영?  
**연철** (처절하게) 빛에 싹 잡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나 남고……. (절규하듯) 은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  
**성삼**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야!  
**구포덕**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야릇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뒷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등!  
**곰치** (건성으로) 예에! 예에!  
**임제순** 부서 때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날린 돈 거둔 것뿐잉게…….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하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이자만 키웠어도……. 예잇! 쫓쫓!  
**범쇠**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얌!  
**임제순** 곰치!

**곰치** (넋 빠고 서선, 헛소리처럼) 예에! 예에!  
 (중략)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었네! 묶었어!  
**곰치** (기겁할 듯 놀라) 예에?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덕** (팔짱 뛰며) 왔따! 은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애걸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 몇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단 말이며!  
**곰치**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빛 갚지랴!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세요! 제발!  
**임제순** (㉤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면!  
 - 천승세, 「만선」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8.<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철은 ㉠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연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빼앗아 갔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빼앗아 간 자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연출가가 <보기>와 같이 ㉠~㉥을 해석한 후 연기를 지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배우의 움직임은 상대와 접촉하려는 욕망이나 상대를 회피하려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 심리, 태도 등을 드러내는데, ㉠, ㉡, ㉢, ㉣은 접촉하려는 욕망으로, ㉤은 회피하려는 욕망으로 해석해 봅시다.

- ① ㉠ :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② ㉡ :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착잡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 상대를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 ④ ㉣ :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⑤ ㉤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척해야 합니다.

99수능 김소운, '특급품'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盤面)이 얽어서 공보같이 된다. 얼마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이다.

비자를 반재(盤材)로 진중(珍重)하게 여기는 소이(所以)는, 오로지 이 유연성(柔軟性)을 취함이다. 반면에 돌이 달을 때의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어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마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黑檀)이나 자단(紫檀)이 귀목(貴木)이라고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자반 일등급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묘미가 있다.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략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겅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 번 (가)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過失)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매양 공무니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과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할 까닭은 없다. 과실은 예찬(禮讚)하거나 장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나는 절대로 과실을 범치 않는다.'고 양언(揚言)할\* 것이냐? 공인된 어느 인격, 어떤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다.

— 김소운, 「특급품」

\*비자반: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

\*진진(津津)한: 흥미진진한

\*양언(揚言)할: 공공연히 큰소리 칠

29. '일급품' 비자반이 '특급품'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 ① 오랜 연륜
- ② 균열의 가능성
- ③ 무늬의 정교함
- ④ 촉감의 섬세함
- ⑤ 재질의 유연성

30.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은?

- ① 이상을 추구하며 산다.
- ②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
- ③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 ④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 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31. (가)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조변석개(朝變夕改)
- ② 청출어람(靑出於藍)
-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 ④ 개과천선(改過遷善)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32. 글쓴이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각박한 현실에 맞서서 대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③ 세상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④ 일상의 사물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⑤ 대상은 신비로운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33. ‘특급품’을 인생에 결부시킨 글쓴이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2점]

- ① 형은 아내와 동생의 관계를 오해한다. 그 때문에 아내가 목숨을 끊고 동생마저 집을 나간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였음을 깨닫고 후회와 슬픔 속에 살아간다.(김동인, 「배따라기」)
- ② 징용에 끌려가 한 팔을 잃은 만도는 아들인 진수마저 전쟁으로 다리를 잃자 절망감에 빠진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다진다.(하근찬, 「수난 이대」)
- ③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바다에서 거대한 다랑어 한 마리를 잡는다. 고기와 대결하며 그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한다. 돌아오다가 상어의 습격으로 잡은 고기를 잃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는다.(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 ④ 나약한 소시민인 철호는 어머니가 실성하고 영호가 범 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뒤 아내까지 유산의 후유증으로 죽자 절망감에 빠진다. 그는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택시 안에서 심한 빈혈증으로 쓰러진다.(이범선, 「오발탄」)
- ⑤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한 조각의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갇힌 장 발장은 19년만에 출옥을 한다. 자신의 잘못에 회한을 느낀 그는 시장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고아인 코제트를 돌보며 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위고, 「레미제라블」)

정답 및 해설

- [06수능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15.② 16.④ 17.⑤ 18.① 19.②  
**[0606모평 최승호, '북어']**  
 15.⑤ 16.② 17.⑤ 18.② 19.③  
**[01수능 규원가, '허난설헌']**  
 42.① 43.⑤ 44.② 45.①  
**[06수능 정철, '속미인곡']**  
 24.④ 25.③ 26.④ 27.① 28.⑤ 29.⑤ 30.②  
**[0909모평 오상원, '모반']**  
 47.③ 48.① 49.② 50.③  
**[04수능 이육, '심생전']**  
 25.④ 26.④ 27.⑤ 28.⑤  
**[05수능 이육, '최고운전']**  
 20.① 21.① 22.① 23.③  
**[11수능 작자미상, '운영전']**  
 47.② 48.④ 49.② 50.②  
**[08수능 천승세, '만선']**  
 37.③ 38.⑤ 39.③  
**[99수능 김소운, '특급품']**  
 29.⑤ 30.③ 31.① 32.④ 33.⑤

[15-19] 현대시

(가) 정지용, '인동차'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겨울의 시련을 인동차를 마시며 이겨내는 노주인의 모습을 통해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인내와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다. 하이얀 삼동으로 표현된 겨울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붉은 덩그락의 불과 파란 무순의 이미지는 시련을 암시하고 있다. 인동차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와 기다림

(나) 박두진, '청산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청산의 생명력을 통해 청산과 같은 밝고 깨끗한 세계에의 소망과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의 열망은 반복적인 표현과 영탄법, 유장한 가락과 산문시의 빠른 호흡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인간사에 전이시켜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주제] 깨끗한 세상에의 소망과 그리움

(다)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사랑 노래로 있지만 누가 떠났고 누가 남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지 실연의 상황만이 제시되었을 뿐 내용은 상당히 암시적이다. 어제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편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며, 이는 모든 길이 사라진, 얼굴을 가

리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처지는 깨어진 금들을 통해 재확인되며 날리는 눈을 통해 비극적 운명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이 느끼는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 암울한 시대 상황과 지식인의 불안한 내면

15.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하이얀 삼동'의 겨울이다. 이러한 시대 현실 속에서 화자는 '덩그락 불'의 붉은 이미지와 '무순'의 파란 이미지로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검은 밤과 이에 대비되는 밝고 푸른 산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다)는 과거와 단절된 화자의 상황을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는 돌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를 깨어진 금을 통해서, 그리고 불안한 화자의 내면을 떠다니는 눈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답] ②

[오답파하기] ①, ④ (나)의 특징이다. ③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가)의 작품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파악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작품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노주인이 '책력도 없이' 삼동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추위로 표현되고 있는 당대의 시대적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주인, 즉 화자는 알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④

17. 추론적 사고(어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시적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요,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이다. 이는 눈 맑고 가슴 맑은 사람이다. 화자는 어둠으로 표현된 밤에 이와 같은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다. ㉕는 화자가 이별을 한 대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연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대와의 이별로 인해 화자는 길이 사라지는 암담함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방황은 내려앉지 못하고 한없이 떠다니는 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답] ⑤

18. 추론적 사고(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나)의 특징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세 가지이다. 이러한 세 가지는 ㉑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산아'라고 부름으로써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산아'에 따르는 수식어의 변용을 통해 반복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철철철'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산의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답] ①

19. 창의적 사고(작품의 창작 구상 파악)

정답해설 : 작품의 창작 구상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다)에 드러난 창작 구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므로 결국은 (다)에 드러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전체로 본다면 화자가 그대와의 단절로 인해 방황하고 있고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냉소적 어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보일 뿐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랑한다'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감정이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③ '몇 송이 눈'의 명사형으로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④ 마침표를 비롯한 쉼표 등의 구두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3, 4행의 길, 8행의 추위, 10행의 눈, 12행의 눈 등 곳곳에서 조사의 생략이 보인다. ⑤ 현실의 상황을 추위와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15-19] 현대시

(가) 김기림, 「바다와 나비」

차분함 속에서도 선명한 이미지 제시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바다, 청(靑)무우밭, 새파란 초생달'이 주는 푸른색과, '흰나비'에서 우러나는 흰색의 이미지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모더니즘 계열의 주된 특징인 회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바라고 꿈꾸었던 바가 냉혹한 현실이나 근대의 문명 앞에 좌절됨으로써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나) 최승호, 「북어(北魚)」

생기를 잃은 북어의 모습을 통해서 말을 잃고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건조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무의미하게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북어의 상태와 비슷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엿볼 수 있다.

(다) 오장환, 「고향 앞에서」

배경상의 쓸쓸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킴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절실하게 그려 낸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집집마다 누룩을 띄워 술을 빚는, 전나무 우거진 고향 마을이 사라지고 없음을 실감한다. 완전한 고향을 찾지 못하고 고향 앞에서 떠돌이 장꾼들에게서 고향의 정취만이라도 확인하려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15. 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 ⑤

(가)에서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와 같이 시각 및 촉각적 심상, (나)에서는 '귀가 멍멍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와 같이 청각적 심상, (다)에서는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 새……'와 같이 청각 및 후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상의 마무리는 각 작품에서 묘한 시적 여운을 남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통점으로는 ⑤가 적절하다.

- ① (나)와는 거리가 멀다('깨어져 있었다, 딱딱했다').
- ② (가)와 (다)에는 일상적 삶을 반성하는 면모가 드러나 있지 않다.

16. 시상 전개 양상의 이해와 감상 [정답] ②

ㄱ. '흰나비'는 '수심(세상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냉혹한 현실)'를 '청무우밭(이상적 세계, 동경의 세계)인가 해서' 그 곳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상 전개로 볼 때, '청무우밭'은 '바다'의 색채와 형태에서 연상된 시어로 볼 수 있다.

ㄴ. '흰나비'는 순진하게 '바다'에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는 양상으로 표현되어 있

다. 이는 연약한 '나비'의 좌절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나비'가 '물결'과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주'는 '나비'의 순진하고 연약한 속성에서 떠올린 시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ㄷ. '꽃이 피지 않아서'라는 시구는 '바다'의 무생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물결'은 '바다'의 냉혹성을 나타내는 시어이므로, '물결'이 일지 않는다면 그 냉혹성이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꽃이 피지 않아서'를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ㄹ. 연약한 '나비 허리'가 '물결에 절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시리다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감각적으로 표현(시각 → 촉각)한 시구이다. 이렇게 볼 때, 시상 전개 양상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②의 ㄱ과 ㄹ이다.

17. 시어의 성격 변별 [정답] ⑤

(나)는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점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초상을 반성적으로 성찰한 작품이다. 이러한 주제 의식과 관련하여 접근할 때, 죽음이 깨웠던 '대가리', 자갈처럼 딱딱한 '혀',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뺏뺏한 '지느러미' 등은 '말의 변비증'을 앓고(할 말을 속 시원히 하지 못하고) '병어리'처럼 사는 사람들, '막대기 같은 생각(뻘뻘하게 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생명의 '지느러미'를 잃고 꿈과 이상을 상실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시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던 시적 화자에게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고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의 '입'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르다.

18. 시에 사용된 시어의 이해 [정답] ②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시적 화자 앞에는 너무나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시적 화자가 그리던 예전의 고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고향 근처의 주막에서 주인집 늙은이에게 자신이 떠나 있던 동안의 슬픈 고향 소식을 전해 들으며 집집마다 누룩을 띄워 술을 빚는, 전나무 우거진 예전의 고향을 그리워한다.

2연에서, 시적 화자는 귀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지만, 고향을 향해 발길을 내딛지 못하고 사람('행인')이 그리워 나룻가에서 서성대고 있다. 그리고 5연에서, 시적 화자는 완전한 고향을 찾지 못하고 고향을 바라보며 장꾼들에게 고향의 정취만이라도 확인하려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시적 화자는 고향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고향 근처에 돌아온 상황이지만,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은 고향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처한 상황이 동일하다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19. 작품의 내용 및 화자의 정서 적용 [정답] ③

(다)의 시적 화자는 변해 버린 고향을 대하면서, 완전한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상실감과 쓸쓸함을 느끼며 예전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즉,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와 그 고향 앞에서 느끼는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15-19] 허난설헌

- 42. ① 43. ⑤ 44. ② 45. ①

**[24-30] 문학 복합 [수필 + 고전시가]**

(가) 양태사, '야청도의성'

지문해설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작자가 발해국의 부사(副使)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즈음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이 작품은 스물넉 줄로 된 칠언고시(七言古詩)인데, 의례적인 수사법을 버리고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여 감동을 자아낸다. 이 시는 특히 청각적 심상이 주제로 승화되는 고도의 표현 기법을 구사했다.

[주제] 향수(鄉愁), 가을 밤에 고국을 그리워함

**(나) 정철, '속미인곡'**

지문해설 : 정철이 관직을 잃고 고향인 전남 창평에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홍만중(洪萬宗)과 김만중(金萬重)에게 극찬을 받은 가사이다.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빌려 임과 이별한 사연을 하소연하고 있다. 임과 이별한 것을 오직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려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속에 작자의 충절이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이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으로 비유되어 더욱 문학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대화 형식을 빌린 표현의 참신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연군의 정

**(다)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지문해설 : 생활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감정을 드러낸 글이다. 훌륭한 공지를 발견했다는 기대가 결국 그 공지 또한 이윤 추구의 대상에 지나지 않더라는 사실의 확인으로 실망하게 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필자는 '두 다리 쪽 뺨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을 줄 공간을 원하고 있다. 이는 소유욕과 물질적 가치와 이윤 추구로 인해 각박해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주제] 소유욕과 물질적 가치 추구로 인해 각박해진 현대적 삶의 공간

**24.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고향의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천상 백옥경의 임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다)의 필자는 '두 다리 쪽 뺨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을 줄 공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에서는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답] ④

**25.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바람'은 '자유로움'과는 연관이 없다. 다듬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계절감과 더불어 애상감의 시적 흥취를 유발하고 있다. ② 향수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④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알린다. ④ 과거 고향에서 들던 소리와 현재 듣는 소리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26. 추론적 사고(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는 '속미인곡'이 지은이 정철의 상소문이라는 가정 하에 의도를 파악케 하는 문제 유형이다.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의도가 드러난 표현을 찾으면 된다. @는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과를 자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답] ④

**27.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A]는 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드러나 있다. [B]는 왜꼬아리 분에서 트는 싹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이로 보아 [A], [B] 모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답] ①

**28. 추론적 사고(심리의 파악과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현대 문명이 가져다주는 욕망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어진 작품은 이러한 현대적 삶이 가져다주는 휴식과 안식의 부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공간은 이윤 추구의 욕망의 통로가 될 뿐이어서 필자는 '두 다리 쪽 뺨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할 공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필자가 인식하는 기저에는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이다. [답] ⑤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는 왜꼬아리 분(盆) 안의 공간을 가리킨다. ㉠, ㉡, ㉢, ㉣는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휴식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답] ⑤

**30. 어휘·어법(어휘의 쓰임 파악)**

정답해설 : (다)의 '풍기는'은 기본형이 '풍기다'로 주로 비유적으로 쓰이면서 '어떤 분위기가 나다. 또는 그런 것을 자아낸다.'는 의미이다. '야성미가 풍기는 몸짓 / 이 작품에서는 인간미가 풍긴다.'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②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⑤ 겨, 검불, 먼지 따위가 날리다. 또는 그런 것을 날리다. ③ 뉘새가 나다. 또는 뉘새를 퍼뜨리다. ④ 짐승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또는 그런 것을 흩어지게 하다.

**[47-50] 현대소설, 오상원, '모반(謀叛)'**

작품해설 : 좌우익의 혈투와 여러 정당의 난립 속에서 이해득실을 달리 하는 단체와 집단들의 각축이 치열하던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여, 한 테러리스트가 비정한 조직의 생리와 휴머니티 사이에서 인간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그린 수작이다. 아직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혼란한 시기에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부정적 세태를 고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비밀결사 조직의 지령을 수행하는 동안 벌어진 어머니의 외로운 죽음으로 인해 주인공이 겪는 갈등과 번민, 그리고 조직 활동의 결과로 인한 죄 없는 한 청년과 그 가족의 참담한 희생, 결국은 조직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에 회의를 느끼고 조직을 이탈하는 주인공의 모습 등에서 당대의 시대적·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문학의 시대 정신을 읽어 낼 수 있다.

[주제] 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되는 조직의 폭력성과 비윤리성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함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중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호칭이 '그'로 되어 있다. 결국 이 글은 시종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날 밤'과 '머칠 전'의 장면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금’(1)의 공간적 배경은 거리의 가로수 아래이고, ‘지금’(2)의 공간적 배경은 어머니가 누워 있는 방 안이다. ② ‘그날 밤’은 2개월 전으로 거사가 계획되었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는 순간인 ‘지금’(2)와 동일한 시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이 ‘지금’(1)의 시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의 ‘그날 밤’[=‘지금’(2)]을 회상하고 있는 중에, 그 때보다도 ‘며칠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며칠 전’이 가장 먼저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시간을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그날 밤’, ‘지금’(2)→‘다음날’→‘지금’(1)이다.

48. 추론적 사고(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설명 중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는 매개’,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 장치’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소재는 ㉠~㉣ 중에서는 ‘신문’밖에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조국’이나 ‘클락슨 소리’는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 및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는 매개’와 거리가 멀다.

49.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앞부분에서는 외부 사물의 묘사로 인물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으며, [A]의 끝부분에서는 약 이 개월 전의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A]에서는 ㉠처럼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으며, ㉡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도 찾을 수 없다.

50. 추론적 사고(대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C]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제 할 일’을 더 중요시하는 데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제 할 일’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B]에서 ‘비밀결사’ 조직의 동료는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다. ⑤ [B]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C]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5~28] 이옥, 「심생전」

25. 사건의 의미에 대한 추리

[A]는 심생과 처녀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26. 인물의 심리에 대한 추리

[B]에서 처녀가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자물쇠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27. 다른 작품에의 적용

처녀 역시 심생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으나, 사회적 규율 때문에 그 심정을 직접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에서 처녀는 심생의 청을 거절하였으나 속으로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28. 감상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심생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처녀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그의 사랑을 거절한다.

[20-23] 고전소설, 최고운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황금 돼지 이야기, 아기 장수 설화, 최치원의 일대기’등 여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영웅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신라 말기의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가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해 중국 황제와 학사들을 탐복시키고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나온 그들의 괴롭힘에 당당히 맞선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부심과 문화적 우월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임진왜란 때 명의 지나친 간섭과 횡포에 대한 민중의 울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 최고운의 일대기를 통한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20. 사실적 사고(사건의 전개 과정 이해)

정답해설 : 최치원이 중국으로 떠날 때 50자 되는 모자를 마련하여 떠났고, 궐문을 들어설 때 대국의 궐문에 ‘모자’가 달는다면 한동안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궐문을 부수게 하였다. 또한 중국 황제는 악사들을 매복하여 최치원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했으나 치원이 청색과 흰색의 부적을 던져 제압한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구덩이에는 ‘구렁이’가 가득했다고 했다. 이어서 황제가 준비한 코끼리를 황색 부적으로 제압했는데 그 부적이 ‘누런 벌’로 변해서 코끼리의 입을 막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사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으나 치원이 이에 수없이 많은 ‘시’를 지어 줌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21. 추론적 사고(사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이야기의 핵심 사건은 황제가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최치원을 불러 죽이려고 했으나, 최치원이 지혜와 재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국이라고 업신여기며 부당하게 억압하는 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소국의 자존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치원의 행동에서 영웅적인 면모는 보이나 이것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2. 비판적 사고(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는 중국을 ‘대국’이라 칭함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듯하지만, 대국의 궐문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는 결국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기의 시에서도 1행과 2행에서는 상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3행에서 ‘그 공이 이미 높다’고 했고, 4행에서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결코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 ㉡보기의 시나 ㉢에서 화자의 영웅적인 기개는 엿볼 수 있으나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지는 않다. 우회적으로 조롱한다는 것은 꾸짖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꾸짖는 것이지만, 준엄하게는 매우 엄격하게 꾸짖는 것이기 때문이다.

23. 비판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와 ㉤는 동일한 어휘지만 어휘가 담고 있는 문맥적

의미는 다르다. 즉, ㉔에서의 장막은 최치원이 오는 길에 방해를 주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는 최치원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최치원이 모든 장애물들을 비범한 능력으로 해결해 나오자 결국 ㉕의 장막을 쳤다. 그리고는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거처도 같게 했다. 이는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과 같은 대접을 받을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㉔㉕은 최치원을 위협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기에 인정할 수 있으나 ㉕은 용서와는 거리가 멀다. 용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리는 관용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황제는 최치원을 인정하고 예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47-50]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운영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신분적인 제약이 심했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신분적인 제약이라는 거대한 장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즉은 김 진사와 운영이 선비. 유영에게 나타나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으로, 금지된 사랑이 싹트고, 지속되고, 결국에는 발각되어 불행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고전 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한 작품이다. 제시된 본문은 두 사람의 사랑에 반동 인물로 작용하는 '특'의 간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이 시련을 겪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과 장애

**4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특은 김 진사의 부탁으로 운영의 재물을 운용하는 인물인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간계를 꾸미고 있다. 도둑을 만났다는 것도 특이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며, 특이 맹인에게 말한 것은 도둑이 버리고간 물건을 자신이 주웠을 뿐이며, 그것에 대해 김 진사가 욕심을 부린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이다.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진사는 도둑을 만나 재물을 뺏겼다는 특의 말을 믿었으나 그것이 특의 소행임을 알고 뒤늦게야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특의 집을 수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㉓ '맹인의 이웃'이 특으로부터 들은 김 진사의 악행에 관한 이야기는 궁중으로까지 전파되어 대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㉔ 대군은 김 진사와 관련된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게 하였고 서궁의 궁녀들을 형장에 세웠다. ㉕ 은성은 대군의 처사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궁녀를 원망하거나 하는 태도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48. 추론적 사고(특정 제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궁궐의 담'은 궁녀의 생활 반경을 규정지을 뿐 아니라, 궁녀로서의 삶과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의 경계를 이루는 제재이다. 궁궐의 담 안쪽에서 살아가는 궁녀들은 대군의 영향 아래 궁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궁녀로서의 신분에 벗어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는 곧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담은 위선과 진실의 경계라고 할 수 없다. 그 경계를 통해 위선과 진실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드러나는 장면은 없기 때문이다. ㉒ 물질적인 문제는 담 밖에 있는 특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궁궐의 담 안쪽을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㉓ 은성의 말로보아 담 안의 궁녀들이라고 해서 담 밖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제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뿐이다. ㉕ 김진사와 특의 관계로 볼 때, 담 밖에도 신분적 위계는 존재하고 있다.

**49. 추론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보기 : <보기는> '운영전'이 운영과 김 진사의 목소리로 서술되는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문제는 이런 특징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유형이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에 반동적인 인물로 작용한 사랑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서술하게 된다는 점에 의해 작품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맹인의 태도로 인해 주인공의 사랑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특의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역경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운영이 김 진사를 사랑하게 된 것도 궁녀라는 신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엄연히 '대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인공은 특의 배신만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㉓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짓는다는 것을 통해 특의 간교함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이는 주인공이 특의 부정적 면모에 초점을 맞춰 지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㉔ 대군은 궁녀들의 주군으로, 궁녀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간 대군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궁녀들을 벌하고자하는 대군에 대해서도 궁녀들은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㉕ 궁녀들은 신분적 제약을 받는 몸이라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처지임이 은성의 말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곧 운영의 사랑이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0. 추론적 사고(한자성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㉑은 특이 거짓으로 도둑을 만나 죽을 뻔하였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매우 급박하고 긴장되었던 순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순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금방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재경각'이 가장 적절하다. 즉, 특은 김 진사에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겨우 도망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내우외환(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걱정과 근심들을 이름. ㉓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대가 도무지 없음을 이름. ㉔ 오리무중(五里霧中): 오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에 있어 방향을 알 수 없음과 같이, 무슨 일에 대해 알 길이 없음의 비유. ㉕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을 이름.

**[37-39] 희곡, 천승세, '만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성실하고 순박하지만 '만선'에 대한 집착을 지니고 있는 어부 곰치를 주인공으로 하여 집착으로 인해 빛어지는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어부라면 누구나 고기를 가득 잡고 돌아오는 꿈을 지니고 있지만, 폭풍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만선에만 집착하는 곰치의 태도는 결국 자식들의 죽음과 아내의 실성을 초래하고 만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부지런함을 잃지 않고 생계를 위해 힘쓰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만선에 집착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비극적으로 몰고 갈 뿐이다. 제시된 부분은 배가 없어 늘 임제순에게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가난한 곰치가 임제순에게 배를 거절당하는 장면이다.

[주제] 만선에 대한 집착이 부르는 삶의 비극

**37. 사실적 사고(작품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본문은 고기를 잡았어도 모두 빛으로 뺏겨버린 연철과 이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가난으로 인한 삶의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맥이 빠진 연철이나 연철의 상황을 알고 놀라는 인물들의 반응들은 모두 간결하게 처리되어 장면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언어유희'가 사용된 부분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풀이 죽은 연철이나 연철이가 빛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놀람의 반응은 모두 간결한 대사로 처리되어 있어 속도감을 준다. ② 인물들은 모두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어 독자들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④ 그물, 부서때, 배 등을 통해 인물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접하고 있는 공간이 바닷가임을 알 수 있다. ⑤ 지시문의 사용이 매우 빈번한 편으로, 이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해준다.

**38. 추론적 사고(인물의 역할 이해)**

**정답해설** : 장면 속에서 연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유형이다. 장면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에 <보기>에 제시된 연철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철의 말과 행동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기>의 ㉠ ~ ㉣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연철은 임제순이 나타나 '배를 묶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 성삼, 도삼과 함께 "배를 묶다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철은 잡은 고기를 처분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게 된다. ② 연철의 첫 대사 "놀러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는 기대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다. ③ 연철은 '다 뺏겼다', '빛에 잡혔다', '그러고도 이 만원의 빛이 남았다' 등의 정보를 분할하여 제공하고 있다. ④ 연철은 '쉬잇'하는 소리로 사립문쪽에 임제순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39. 추론적 사고(인물의 행동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설명을 통해 제시된 ㉠ ~ ㉣에 나타난 배우의 움직임의 접촉과 회피의 욕망으로 분류한 후, 각 움직임에 들어 있는 의도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다. ㉢은 연철이 하는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곰치가 연철에게 다가가며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상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

구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연철이 하는 말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연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② 연철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착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곰치의 불안하고 애절한 마음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행동이다. ⑤ 곰치의 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29-33] 김소운, '특급품'**

29.⑤ 30.③ 31.① 32.④ 33.⑤